지역 소식통

부안군, 지방재정 신속집행

권익현 부안군수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권익현 군수는 15일 열린 주요 간부회의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통해 코로나19로 더욱 힘들어진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해서는 전 부서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전 부서는 현안사업과 이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지방재정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또 권익현 군수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이 오는 24일 새만금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라며 "부안 발전을 위한 현안사업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권익현 군수는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을 위해 가금농가에 대한 예찰과 방역활동을 강화해 달라"며 "퇴·액비 살포로 인한 악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 지도 및 점검에 최선을 다하자"고 현안사업을 챙겼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 식초문화아카데미 교육생 모집…19일까지

대한민국 식초문화도시' 고창군이 식초를 손쉽게 만들고 즐기는 문화를 만들고,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식초문화아카데미 교육생'을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

아카데미는 고창군이 식초를 지역의 대표 식품산업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개설한 국내 최초 식초 전문 교육 과정이다.

올해는 기본반 40명, 응용반, 20명, 상품화반 15명 등 총 75명을 선발한다. 교육과정은 3월에 시작해 11월까지 각 과정별 25차례 걸쳐 진행된다.

기본반은 식초의 제조 이론과 실습 위주로 식초를 즐기는 건강한 식문화 보급으로 구성돼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사랑상품권 만족 79.5%

고창군, 652명 대상 주민 만족도 및 개선방향 조사 결과
농기계배달서비스·농민수당·높을고창 브랜드 상위권

민선 7기 고창군의 다양한 정책사업 중 '고창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주민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고창군은 주)케이티씨에스에 의뢰해 고창군민 652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0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 '민선 7기 고창군 군정운영 방향 및 만족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군민 10명 중 7명 이상(79.5%)이 가장 만족도 높은 시책으로 '고창사랑상품권·높을고창카드'를 꼽았다. 고창사랑상품권은 군민의 89.7%가 '잘알고 있다'에 응답해 인지도 측면에서도 가장 높았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속에선 재난지원금, 농민수당 등 각종 지원금이 상품권과 높을고창 카드로 충전됐고, 10%추가 충전 혜택까지 더해져서 골목 상권에 전방위적으로 매출 회복이 확인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농기계배달서비스(67.4%)', '농민수당(61.5%)', '높을고창 브랜드(59%)' 등 정책 만족도 상위권을 '농생명 시책'이 차지하면서 군민과 함께하는 농생명식품수도 고창의 진정성이 빛났다.

향후 최우선 정책부분에 대한 질문에서도 '농민수당 지급(31.5%)'이 가장 많았다. 고창군은 올해 어가와 양봉농가에도 농어민수당 지급을 확대하고, 향후 법제화를 통한 정부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어 '고창 기업유치와 산업단지 정상화(24.5%)'에도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보였다. 앞서 군은 수년간 풀밭으로 변해 군민들의 마음을 애태웠던 고창일반산단의 유치권을 해결하고, 육가공업체·즉석밥 제조업체 등의 기업유치를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식품산단으로 도약하고 있다. 이에 더해 고창군민들은 행정의 코로나19대응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

고창군이 코로나19 대응을 잘하고 있어 만족스럽다는 군민은 88%의 비중을 차지했고, 100점 환산 시 89.92점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남성대비 여성층이 고창군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만족도에 호평을 보내줬다. 앞서 고창군은 코로나19 초기 각종 행사 취소와 연기, 시설 폐쇄, 방역소독 물품 배포 등에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앞서 선제적 조처를 했다. 마스크 수급 대란이 일었던 지난해 봄에도 고창군은 지역 내 공동체 조직을 활용, 면 마스크를 생산해 보급했다. 재난기본소득 역시 '부모님 섬기는 효자군정'과 '자식농사 잘짓는 고창'을 위한 특화시책으로 다자녀가구와 노인부모 부양세대에 추가로 20만원을 지급하며 호평을 얻었다. 여기에 때마다 앞장서 주는 유기상 고창군수의 진정성 있는 호소 역시 불안한 군민들을 다독이고, 울력하는 힘으로 발휘됐다.

유 군수는 지난 가을 고창군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광주·전남지역에서 확진자가 잇따랐을 때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로 요식업체의 어려움이 컸을 때 등 2차례에 걸쳐 대군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관련 종사자들을 위로하는 동시에 위기극복 의지를 다졌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그간 솔선수범해 코로나19 방역의 모범이 돼 주신 군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민선7기 한반도 첫수도 고창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도를 정책에 잘 반영해 일상회복과 경제도약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부서간 협업 행정 활성화 정책 추진

직원 1인당 매월 200포인트
도움준 상대에게 10포인트 나눔

도내 최초 정읍시가 행정서비스 개선을 통한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협업 행정 활성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도내 최초로 조직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부서 간 직원들의 소통강화와 유기적 협업문화 조성을 위한 협업 포인트 제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협업 포인트 제도는 직원이 다른 기관 또는 기관 내 다른 부서의 직원과 업무 과정에서 도움을 주고받거나 지식·정보·장비 등을 공유하는 등 협업한 경우 직원 간 포인트를 주고받는 제도다.

공유와 소통, 협업을 강조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협업을 잘하는 직원이 부각되고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원 1인당 매월 200포인트를 배정받으며 업무상 도움을 준 상대방에게 감사 메시지와 함께 한 번에 10포인트씩 보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제도 활성화와 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연말 실적을 종합해 우수 직원을 선정하고, 협업 내용을 게시해 전 직원 함께 공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직원들이 서로 격려하며 소통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은 물론, 유대관계 형성을 통한 협력과 화합의 조직문화가 정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우암로 전선·통신선 지중화 사업 본격

정읍시는 정부가 확정·발표한 한국판 뉴딜사업 중 하나인 그린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전선·통신선 지중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로 내 도시미관을 해치는 한전, 통신 등의 전봇대와 배전선로를 없애고, 이를 지중화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관련해 시는 총사업비 11억6천만원을 투입해 샘고을시장 우암로 지역의 보행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거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번 우암로 지중화 사업은 권혁철피부과의원부터 유한당약국까지 원도심 약 200m 구간에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지중화를 위해서는 굴착공사를 동반하기 때문에 공사 기간 중 차량 통제가 불가피함에 따라 비교적 한가한 명절 이후로 공사 계획을 잡았다. 따라서 3월 말까지 약 40일간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우암로의 차량 통행이 금지되고 공사가 끝나는 오후 6시부터 통행이 재개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만월어촌계 지주식 김 현장

고창 지주식김, 명품김 도약

만월어촌계, 서해안 최초 유기수산물 인증 획득

고창군은 만월어촌계 지주식김이 서해안권 최초 친환경 국내 유기수산물 인증을 취득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내 유기인증은 친환경 어업을 통해 생산하는 식용 양식수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수질, 방사능·중금속 등 성분검사, 어가별 생산 및 출하일지 기록, 위생교육수료 등 서류심사, 현장심사 등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 인증서가 발급된다.

고창 만월어촌계는 원초와 제품 품질관리를 위해 염산, 활성처리제 등 화학약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직 땀과 정성으로 키워내며 까다로운 원초 관리를 해왔다. 고창 지주식 김은 4관왕에 빛나는 우수한 환경에서 생산된다. 국가연안습지보호지역, 람사르 습지,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7월 등재 예정) 등 청정한 환경에서 생물 다양성 등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은 곳이다.

고창 지주식 김 양식은 만돌 갯벌에서 1623년 시작된 전통의 김 양식법이다. 하루 평균 낮 4시간, 밤 4시간 이상 김발을 노출 시켜 김 본래의 맛과 향이 뛰어나며 국내의 0.1% 소량만 생산되는 명품 중의 명품 김이다.

군과 어촌계는 향후 국내 유기가공식품 인증까지 추진해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심먹거리, 바른먹거리 생산에 노력해 프리미엄 김 상품화를 실현할 예정이다.

고창군도 친환경 수산물 장려를 위해 유기수산물 인증 제반 경비 지원과 친환경 김 그물망 구입, 물김포대 구입, 종자구입 지원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친환경 고품질 김 생산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김 양식 생산사업을 지원하고 우수성을 홍보해 세계 제일의 명품 브랜드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탄소포인트제 참여신청 접수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에너지 사용량을 일정량 이상 줄일 경우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로 환산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탄소포인트제 참여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탄소포인트제는 일반가정과 상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 절감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산정해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현금이나 상품권, 그린카드포인트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참여방법은 실내 적정온도 유지와 상수도 사용 시 물 받아 사용하기, 절전형 조명으로 교체하고 사용하지 않은 조명 끄기, 사용하지 않은 콘센트 뽑기 등 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으로 에너지를 절약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법이다.

군은 지난해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한 세대를 대상으로 상반기에는 1177세대에 1300만원을, 하반기에는 1214세대에 1200만원을 지급했다.

올해는 감축실적에 따라 가정 및 아파트 단지 등에 인센티브 2800만원, 자동차 67만원 등 총 2867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참여신청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www.cpoint.or.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탄소포인트제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부안군 환경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